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1-11

요절: 2:4-5a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2-3 장에서, 영화로우신 그리스도는 소아시아 지역의 특정한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영화로우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곳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셔서, 세상에서부터 자신에게로 부르신 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비유는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위해 생명과 사랑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을 말해 줍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매우 특별합니다.

요즈음 미국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비즈니스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적 틀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 가르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이런 접근은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각 교회에게 각각 자신의 다른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교회를 칭찬하시고 꾸짖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맥 속에서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교회 에베소(1-7). 1 세기에 에베소는 에게 해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는 로마제국에서 약 50 만명의 인구를 가진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어서, 도시는 많은 인종과,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고대 동서를 가로지르는 통로였기 때문에 주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의 시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클레오파트라도 여기에서 쇼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당시에 가장 큰 극장과 도서관과 창녀의 집과 오락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검투 경기를 보기 위해 에베소로 여행하였습니다(고전 15:32). 소아시아의 소도시의 사람들은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 에베소를 정기적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데미(일명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그의 사역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에베소 도시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으며(행 19:10), 계시록에 언급된 여섯 교회를 포함하여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바울의 계승자는 디모데이고, 그 뒤를 이어 오네시모가 섬겼다고 합니다. 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옮겨와 교회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매우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상당히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한가지 그리스도를 슬프시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첫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 절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개역)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자”(angel)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신약 성경은 정경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는 메신저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회람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메신저가 하늘의 천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학자들은 교회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자는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맡은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화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이가 이르시되..”(These are the words of him)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2:1b,8b,12b,18b; 3:1b,7b,14b).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이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각 교회에 의미심장한, 자신의 독특한 면을 계시하심으로 각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1c). 이는 영화로우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메신저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그들의 행위와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명령하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기 위해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2-3 절에서,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그는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2-3 장에서 10 번이나 반복됩니다(2:2[2],9[2],13,19; 3:1,8[2],15). 그리스도는 교회의 행위와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한 감정을 갖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십니다. 디모데전서 5:25b 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갈 6:9).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의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2a). “행위”는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요약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수고”는 그들이 땀을 흘리며 지칠 때까지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섬긴 활동적인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그것들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성경공부와 기도, 복음 전하는 일과 제자양성에 헌신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리스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라고 함). 이 우상숭배는 매우 부도덕하고 역겨웠습니다. 에베소는 또한 로마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는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아시아 지역의 모교회로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육 간에 돌봄이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오고 갔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손님들을 따뜻하게 환영했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며, 숙소와 음식을 제공했고, 심지어 관광도 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신자들은 뛰어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2). 그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였고,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복음을 수호했으며, 진리의 기둥이요 기초로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진리를 위해 투쟁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감당했으나 지치지 않았습니다(3).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면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4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다 forsaken”란 단어는 강한 뜻을 가진 단어로, ESV에서는 “abandoned”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한 어조는, 그들에게 특히 신앙의 동기가 매우 잘못되었음을 시사해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통 교리를 추구하느라 율법적이고 비판적이 되었으며, 자기 의로 가득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교회를 세운 이후, 자신들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들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대신에, 교인들과 재정을 잘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들은 점점 에베소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클레오파트라도 그곳에서 쇼핑할만큼 온갖 사치품들로 가득찬 거대한 국제 시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그리스의 드라마와 검투사들의 경기를 포함하여 신나는 오락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는 마귀들이 신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이용했던 사원의 창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이 이런 환경에 살면서 우상 숭배 문화에 굴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에베소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스피릿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우선권이 바뀌었고,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강한 어조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친밀하고 끈끈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롬 5:8). 그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도 이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은 결혼생활과 같이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가 전심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다른 배우자는 미지근하고 정함이 없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는 매우 화가 날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열매맺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매우 진지하게 그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점진적이면서 심각하게 식어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가마솥의 개구리처럼 이를 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마솥의 물이 처음부터 끓게 된다면, 개구리는 밖으로 뛰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서서히 데우게 되면, 개구리는 따뜻하고 안락하게 느껴지게 되고, 나른하게 되어 마침내는 삶아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처음 사랑”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정열적이고 기쁨이 넘칩니다. 처음 사랑에는 재고한다거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어떤 희생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뭅니다. 이 사랑에 강권되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희생하고,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것은 축복을 쟁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축복의 때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 투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자기 만족에 빠지고 스피릿을 잃게 됩니다. 또한 생각이 복잡해지고 염려가 많아지게 됩니다. 당신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혹하고 부담이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행위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 등에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5c). 첫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면, 생명도 없고 스피릿도 없게 됩니다. 이는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메말라 죽게 되고 불쏘시개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대로 에베소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남아 있는 모든 것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먼지 투성이의 돌덩이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심하게 책망하신 후에 격려의 말을 더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가 주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순수 복음 진리와 영을 오염시키는 독약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가르침과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니골라당을 미워했고,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야 합니다. 이는 사랑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로마서 12:9 절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7 절에서,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7a)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각 편지마다 반복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7b). 이 문맥에서 이기는 자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 가운데 성장하는 자들이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으로 활기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둘째, 고난 받는 교회 서머나(8-11)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자를 통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8a).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서머나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곳은 포장 도로가 깔려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고, 도서관과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 곳은 그리스의 시인인 호머의 출생지라고 합니다. 그 곳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한 로마-그리스 신들인 제우스, 아폴로, 아프로디테, 그리고 특별히 신들의 어머니인 대지의 신 키벨레를 섬기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성장했는지 잘 모릅니다. 추정하건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세워진 교회였을 것입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집권했을 때 황제숭배의 열기가 열광적으로 퍼져 나갔고, 이런 가운데 교회가 살아남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편에 섰고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스도께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더 타올랐습니다. 2 세기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서마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그는 황제숭배와 우상숭배를 거부하여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서마나 교회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8b). 계시록에는 세 번이나 그리스도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1:17; 2:8; 22:13). 이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이미 계셨고, 세상이 멸망해도 계속해서 계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과 피조물을 초월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실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틀림없이 서마나 교회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셨습니다(9a). 때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매우 잘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인간적인 동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으로 향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마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궁핍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줍니다. 베네주엘라의 형제 자매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물질적 궁핍의 때가 영적 대부흥의 시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의 비방을 알고 계셨습니다(9b).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적대적이 되어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불한당들을 고용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을 인육을 먹는다고 하였고,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기를 거부한 것을 황제에 대항하는 정치적 반란이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도록 하였고, 신자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습니다(9c). 사탄은 거짓의 아버요 그들은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의 신자들은 미혹되지 않았고 진리에 굳게 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장차 더 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10a). 그리스도는 그들의 박해를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를 인내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교회를 시험하시고 정화하도록 선을 위해 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박해는 그것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끝이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는 그 기간을 제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십 일 동안의 짧고도 강한 환난을 허락하신 후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박해의 때에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10b). 그리스도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11). 승리자는 박해의 때에도 고난을 견디고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서마나 도시는 현재도 존재하며 그곳에는 많은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스도는 그를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영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웃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